

곳간마다 넘쳐나는 쌀 어저나...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농촌이나 어촌에서 생활하며 하루 세끼를 손수 만들어 챙겨 먹는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 이름도 ‘삼시 세끼’다. 정작 ‘먹방 프로그램’의 인기와 달리 현대인들은 하루에 세 끼를 챙겨 먹는 이가 드문 게 현실이다. 이런 경향은 우리 국민의 대표 주식이라 여겨지는 쌀 밥 소비량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타난다.

작년 1인당 하루 쌀소비 169.9g...30년만에 절반↓ 전남도·농협, 수도권서 ‘전남 쌀 소비촉진’ 행사 전남농기원, 쌀 이용 제빵크림 등 가공식품 개발

◇ 1인당 쌀소비 30년만에 절반으로 감소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민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69.6g이었다. 전년도인 2015년보다 1.6%(2.8g) 줄었다. 밥 한 공기에 쌀 100~120g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은 셈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9kg이었다.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6년(127.7k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비가 줄다 보니 정부의 쌀 재고량도 상당하다. 지난 8월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206만t에 달한다.

쌀이 넘쳐나다 보니 농가들은 피땀 흘린 결실을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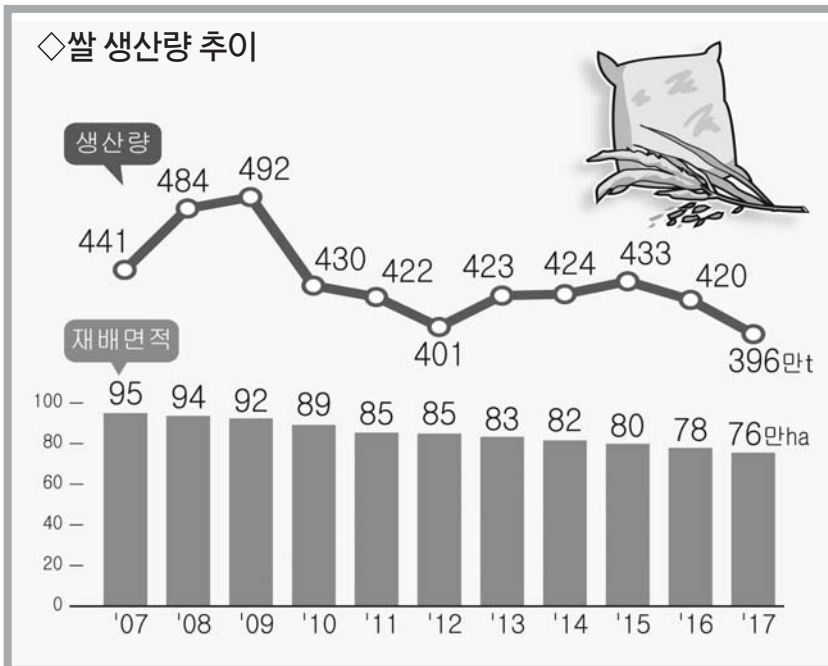
하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전체 쌀 생산량이 처음으로 400만t을 밑돌 것으로 예측돼 쌀 가격이 조금 올라갈 전망이다지만 농가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보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서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재배면적 감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적잖은 양이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시장에서의 소비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밥 짓기 경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

과거 품질 좋은 쌀 생산에만 매달리던 지자체와 농업단체들은 갖가지 이색적인 방법의 소비촉진책을 마련, 시행에 나서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지역 브랜드인 ‘미소진 쌀’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오는 22일 충주세계무술공원 메인 무대에서 ‘맛있는 쌀밥 짓기’ 경연을 연다.

경남도도 역시 쌀 소비촉진책을 마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생명평화축제에서 기능성 쌀 홍보와 시식행사를 마련했다.

농협 전남·충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부터 밥맛이 좋은 식당을 발굴하는 ‘쌀밥이 맛있는 집’ 선정 행사도 펼치

고 있다.

◇ 쌀곡수 등 가공식품 적극 개발·지원

지자체들은 쌀 가공 식품을 개발하거나 가공식품 생산 기지를 지원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 제빵용 2종, 커피용 1종 등 크림 3종을 개발했다.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대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협 전남본부장
20일 국회 ‘농협국정감사’에 참석한다.



박태선 농협 광주본부장
20일 국회 ‘농협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우리는행-이노비즈협회 기술우수 중기 지원 협약

우리는행은 이노비즈협회와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는행은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의 대출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이노비즈협회 전용 통장을 제공한다.

이노비즈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는 입력과 업종 제한 없이 최장 5년간 연 보증료가 0.4%포인트 저렴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대출과 전용 통장을 우리는행과 공동 마케팅한다.

농협은행 모바일 직불결제 확대

NH농협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퍼스트데이터코리아의 1,000여 온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애플리케이션 ‘NH오픈캐시’로 모바일직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결제 금액의 0.5%를 현금으로 즉시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삼성 ‘기어 S3 골프 에디션’ 출시

삼성전자는 골프와 협업해 골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캐디’를 탑재한 스마트워치 ‘기어 S3 골프 에디션’을 19일 국내 출시했다.

스마트 캐디는 전 세계 6만개 이상의 골프 코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부터 그린까지의 잔여 거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골프를 즐기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어 S3 골프 에디션은 기존 골프 거리 측정기가 제공하는 ‘코스 뷰’와 ‘그린 뷰’ 기능을 함께 지원해 전국 주요 골프장의 코스 정보를 생생하게 파악하고 그린의 형태와 지형의 높낮이까지 볼 수 있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39만 9,300원이다.

금호타이어 신임 회장 김종호 자문 선임



새로운 경영진이 금호타이어를 이끌어 간다.

금호타이어는 신임 회장으로 김종호 자문을, 신임 총괄관리사장은 새로운 경영진이 금호타이어를 이끌어 간다.

김종호 회장은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간 금호타이어 자문으로 지냈고, 이전에는 고문, 사장을 역임하는 등 1976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후로 40년 동안 회사에 몸담은 인물이다.

후주와 미국 법인 근무 경력이 있으며, 영업총괄을 맡아 해외 영업 및 물류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는다.

한용성 총괄관리 사장은 우리는행에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 국제영업부, 베트남 하노이 지점 차장, 기업개선부 대우 구조조정팀장 및 부장을 역임했다.

현대차, 세계 정비사 기능 경진대회 개최

53개국 정비사 참가 ‘기술 교류의 장’

현대자동차가 제12회 세계 정비사 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16~19일 서울 동작구 소재 현대차 남부연구소에서 진행됐다. 현대차는 1995년부터 매 2년마다 정비 경진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올해 대회엔 53개국 72명의 기술자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실기 평가(엔진, 전기, 배기 부문), 필기 평가(정비기술 이론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다. 종합 점수 기

준 금·은·동상 수상자 및 각 종목별 성적 우수자 등 총 15명에게 상금과 트로피가 전달됐다.

금상을 차지한 로손 후호(호주)씨는 “세계 각국의 뛰어난 정비기술 대가들과 능력을 겨루어 종합 우승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항상 글로벌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로 소비자 감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19일~20일 aT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한 다.

aT, 전북권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

광주우수의식업체 식재료 구매협약 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20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한다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는 국내 외식업체 바이어를 식재료 산지로 초청해 식재료 생산업체와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행사다.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외식업체는 좋은 품질의 국산 식재료를 시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식재료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전북권 산지페어는 부산의 명륜1번가 우수의식업체(회장 박달홍), 광주 무등산보리밥 우수

외식업체(회장 김승해)가 바이어에 참석했다.

전북 완주봉상생강조합, 고산농협 등 생산업체 및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며, 또한 전라북도 생산업체와 부산·광주 우수의식업체구간 식재료 구매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총 8번의 행사가 계획된 산지페어는 이번 전북권 산지페어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에 관심 있는 업체는 ‘The외식 홈페이지’의 ‘식재료사업’ 메뉴에서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미애 기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현대차 세계 정비사 기능 경진대회에서 참가자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16개월째 최저금리...연말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북 리스크 발목 잡히고 경기회복 가능성 안갯속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이달까지 열린 13차례의 금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세 차례 금융위에서 연거푸 동결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됐지만, 북한 리스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발목이 잡혔다.

한은은 지난번(8월) 금융위에서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추석 연휴 이후 지금껏 북한의 도발

은 없었지만 북한 리스크가 진정됐다고 하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매수세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아직 높은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이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도 주요 고려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반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되면 파장이 크다. 특히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줘서 자칫 경기 회복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께 발표될 정부가 계부채 대책 효과를 지켜본 뒤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한은이 밝힌은 금리 인상 전제 조건인 ‘뚜렷한 성장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체 식품 개발 요구를 충족하고 쌀 소비량도 늘리기 위해서다.

충남 금산에는 쌀곡수용 쌀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시범단지가 조성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7월 충남 금산을 ‘팔방미 시범재배단지’로 선정했다.

2013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팔방미는 아밀로스 함량이 29% 이상이어서 쌀곡수 제조에 적합한 품종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금산군은 밀가루를 대체하는 쌀가루를 개발, 떡이나 국수·과자 등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 적용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품평회도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쌀을 곁들였다.

도는 사업비 18억6천여만원을 들여 김제와 임실 등 3곳에 쌀 가공식품업체 공장을 신축, 포장라인과 급속냉동기를 지원한다.

올해 800t의 친환경 쌀을 제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851곳에 공급하기로 최근 제주도와 협약을 맺었다.

화산섬의 특성상 쌀 생산이 거의 되지 않고 감귤이 많이 나는 제주도에 전북의 쌀을 공급하고 대신 제주산 감귤을 전북도가 구매하는 것이 협약의 뼈대. 경북도는 올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쌀가루 공급을 확대한다.

쌀가루 제조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전해줘, 기존 가격보다 싸게 식품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